



## <녹 취 문>

|         |                                                 |       |                                 |
|---------|-------------------------------------------------|-------|---------------------------------|
| 과제명     |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br><'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       |                                 |
| 구술자     | 조성희                                             |       |                                 |
| 면담자     | 송미정                                             | 면담지원자 | 정지선                             |
| 면담일시    | 2025. 07. 04.                                   | 면담장소  |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18번길<br>29. 8동605호 |
| 녹취문 작성자 | 송미정                                             | 회차    | 1회차                             |

### 1. 시작멘트: 일시 및 연구진 소개 (00:00:00~00:00:52)

본 면담은 2025년 인천광역시 미추홀학산문화원의 주민 구술채록을 위한 인터뷰입니다.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 도시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위해, 관련된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해 주실 분은 조성희 선생님입니다. 일시는 2025년 7월 4일 금요일이고, 장소는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418번길29. 8동605호입니다. 면담 진행은 송미정이 하겠습니다.

### 2. 개인신상과 근황(00:00:53~00:03:05)

면담자: 그리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최근 근황을 여쭙보면서 진행할게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더운데

구술자: 러브 버그 때문에 온갖 창문과 문을 다 닫고 찜통 더위에서 참다가 식구들 오면 에어컨 한 번씩 틀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면담자: 그 러그버그가 물에 약한 거를 저희 엄마가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엄마는 창틀에 자꾸 물을 부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사체가 동동동동 떠 있더라고요.

저도 그건 싫은데 이게 만지기는 더 싫잖아요.

구술자: 그냥 이렇게 손으로 톡 치면 그래도 다른 데 날아가거나 하니까 끈끈이를 사용해 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집에서

면담자: 그래요. 그렇구나. 요즘 그래도 지금 좀 비 오고 나서 조금 사라지진 않았어요.

구술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집에 바깥에 나가려고 복도를 딱 나가면



사체들이 우르르 쏟아져서 죽어 있더라고요.

면담자: 기본적인 것부터 많이 여쭙볼 거예요. 고향은 어디세요?

구술자: 저 인천이요

면담자: 인천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구술자: 어디서 태어났냐 저는 기억이 없잖아요. 네 저희 친정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태어난 거는 문학동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면담자: 문학동 그래도 어떻게 문학동에서 제가 얼핏 듣기로는 호미마을 쪽으로 그럼 이사를 가신 거네요. 어려서

구술자: 엄마 아빠가 문학동에서 신집 살림을 처음에 시작하셨다고 해요.  
제가 결혼하기 전 본적지가 학익동 590번지로 알고 있는데, 아빠의 본적이니까 엄마가 결혼하시면서 옮겨졌고 저도 자동적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쪽이었던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들이 다 학익동에서 지냈어요.

면담자: 그렇구나.

구술자: 문학동은 사실 그냥 엄마 말인 거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유아기 시절만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 3. 호미마을에서의 기억(00:03:06~00:12:17)

면담자: 그러면 호미마을에서는 몇 살까지 거주하셨어요?

구술자: 제 기억으로는 12살까지였던 것 같아요. 12살 거의 끝날 때쯤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사를 전학을 갔었거든요. 관교동으로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있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호미마을에서 사시면서 조갯고개라고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



조갯고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혹시 조갯고개에 대해서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구술자: 이런 호미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조갯고개라고 어렸을 때 그런 명칭을 얘기하면서 지내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호미마을 여기는 조갯고개 이렇게 명칭을 알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른들은 또 모르겠지만

면담자: 그렇구나.

면담자: 제가 마을을 잠깐 둘러봤는데 거기가 골목들이 우리 옛날에는 골목이 많잖아요.  
주로 뭐 하고 노셨어요? 어린 시절에

구술자: 마구 뛰어다녔죠. 미친 듯이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골목들도 많았지만 골목보다는.  
저희 아빠도 전라도 분이셨는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아마 모여서 거주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판자촌처럼 지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터가 많았어요.  
제 기억에 공사 현장 같은 곳도 많았고 그렇게 널찍한 곳에서 좀 많이 놀았죠.  
골목에서 굳이 막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지 않았어도 될 만한 공간은 오히려 더 (넓었죠).  
어렸을 적 기억으로는 혜택을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에 비해서는 넓고 풍족하게 마음껏 뛰어놀아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면담자: 저도 여기 신기시장 위에서 살았었거든요.

구술자: 신기시장 예.

면담자: 그쪽에서 살았는데 그때 옛날에는 저희도 이렇게 우물이 큰 게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조그마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그 우물을 보면 막 이렇게 막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 빠지면 죽는다는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호미마을에서도 우물이 여러 개 있었다고 들었어요.

구술자: 우물에 대한 기억은 사실 별로 없어요.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뭔가를 하고  
이랬던 기억은 별로 없고 펌프가 있었던 건 기억이 나요.



면담자: 그 당시에 펌프가 있었어.

구술자: 네. 네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할머니 따라서 그 근처에서 물을 이렇게 여러 번 해서. 저도 해보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되죠.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따라가서 제가 굳이 빨래를 하거나 이럴 일이 없잖아요.

면담자: 그렇죠.

구술자: 그래서 우물은 그렇게 제 기억 속에는 크게 작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면담자: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 공터에서 많이 노신 거예요?

그럼

구술자: 네 주로 공터 아니면 그 동양화학 뒷문. 세제 원료가 되는 그런 가루들 있잖아요. 그게 제 기억에 어마무시한 동산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청 크고 파란색 도포 같은 걸로 덮어놨는데 뭘 몰랐으니까, 동네 언니 오빠들 따라서 미끄럼틀 타자 그리고 저는 푸대자루 하나 끌고 가서 거기 막 기어 올라가서 한참 내려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4계절을 푸대자루로 미끄럼 타고 놀았겠네요.

구술자: 그런 기억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걸려서 혼나서 또 갔다가 한참 뒤에 또 다시 가고 그렇게 놀았죠.

면담자: 그 동네에 친구들은 많았었어요.

구술자: 아이들 많았죠.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엄마는 일을 안 하셨지만 좀 젊은 새댁에 속했거든요. 저를 좀 일찍 낳으셨고 엄마 아빠가 결혼을 일찍 하신 편이어서, 거기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다 저희 엄마보다 항상 다 연배가 많으셨어요.

그리고 다 동양화학에 하청업체 직원처럼 몇 교대식으로 일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파란색 제복 입고 다니시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다 동양화학에서 일하셨고 자녀들이 보통 2명 3명이랬으니까. 그런 자녀들은 다 그냥 방치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이들을 데려다 못하는 요리 솜씨로 간식도 해서 같이 먹고,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또래 집단이 생긴 거죠.



엄마 덕분에. 엄마는 고향이 여기는 아니잖아요.

인성여고를 나오셨는데 그 마을에서 학력이 좀 있으셨던 거죠. 본인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 학업도 좀 봐주고 동기부여도 해줄 겸. 저희는 시험이 있었던 세대니까 다달이 시험도 보고, ‘다음번에 너 성적 좀 오르면 아줌마가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열심히 동기부여가 된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럴까. 우리 엄마인데 저 사람의 엄마가 아닌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엄마가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맛있는 걸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로 간식은 뭘 해 주셨어요?

구술자: 딱히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리를 그렇게 잘 하시지 않아서. 근데 제일로 맛있게 먹었던 건 카레. 카레를 제일 잘 하시는 편이어서 카레라이스하고 떡볶이 뭐 이런 거였는데 그렇게 맛이 있었던 기억은 없어요. 사실.

면담자: 그래도 엄마로 인해서 애들 사랑방처럼 됐네요.  
그래도 엄마가 고학력자라서 애들한테 좀 많이 방향을 잡아주시고 싶으셨나 보다.

구술자: 그러니까 엄마가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왜 아빠 같은 사람 만났어?’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인천 토박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동네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인천에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은 인천 배다리에서 되게 유복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 봤던 인천이었는데, ‘이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어. 여긴 어디야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도 사랑은 좀 많으셨던 편인 것 같고 유복하게 자랐으니까 그걸 베풀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되게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면담자: 의무감 같은 뭔가가 나오셨나 보다. 애들한테

구술자: 이 어린아이들한테 좀 잘 대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품으셨던 것 같아요.

면담자: 미래까지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구술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면담자: 그래요. 네

면담자: 너무 나갔나. 저희 엄마도. 저희도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도 이렇게 지나가시는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당신이 짐이 있어도  
그걸 들어다가 모셔다 드리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아프시지만, 그 파킨슨병 있으신 분들은 자꾸 넘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도 당신도 그걸 붙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좀 아쉬워하고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드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어머니도 참 따뜻하신 분 같아요.

구술자: 천성이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타고난 사랑이 넘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닌 분들은 거기에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제 기억에는 저희 엄마 외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을 때는 없었어요. 위낙에 다 바쁘게 사셨고 다 맞벌이들이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항상 집에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저를 좀 부러워했던 것도  
있겠죠. 엄마가 어쨌든 계속 집에 있었으니까.

면담자: 저도 저희 엄마가 직장을 다니셔서 주말이면 제가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어요.

엄마한테

구술자: 그랬을 수 있어.

면담자: 그 친구들을 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 4. 새인천 폴장 이야기(00:12:18~00:17:04)

면담자: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동양화학에서 운영하던 새인천 유원지가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구술자: 해마다 갔죠. 거의 해마다 여기는

면담자: 좋았겠다.



구술자: 사실 돈이 얼마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

면담자: 그렇지요. 부모님이 다 내시고.

구술자: 기억에 남은 건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근교에 있는 그런 물놀이장을 가면 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맑았어요. 다 바닥이 보일 정도로. 바닥이 안 보였어요. 왜 바닷물을 갖다 끌어다 썼으니까. 그래서 시커매죽죽하고 정말 그 더러운 퐁도 막 굴러다닐 때도 있고 그냥 그대로 퍼다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찌물을 이용하니까 무료잖아요. 바닷물을 쓰는 거는 아마 끌어다가 하는 그런 운송 비용 같은 건 들었을겠지만. 그 주변에 많은 서민층 사람들이 저렴하게 여름방학이면 놀 수 있었던 거리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 회사(동양화학) 쪽에서는, 환경 오염 같은 거 분명히 심각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서 살아남았지만, 알게 모르게 입막음용으로 주민들한테 제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는 그렇게 풀장을 만들었지만 반대편에는 바로 바닷물이기 때문에 아빠나 동네 어르신들이 낚시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망둥이 같은 거 나오고 그러니까. 다 같이 모든 주민이 이용해도 서로 다 만족할 만한 곳이었던 거예요. 여름에는 어린이들은 수영하고 어른들은 가서 망둥이 잡아서 소주 한 잔 먹고 막 이런 게 다 같이 가족 단위로 놀아도 충분히 됐던 곳 그런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저희 큰 집이 딸만 셋이었는데 저희 아빠가 딱히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신데 그 많은 애들을 끌고 항상 해마다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 사촌 언니들이랑 같이 놀았고, 그 더러운 물에서 저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늘상 맨날 울면서 물에 빠져서 싫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면담자: 그러면은 혹시 옛날에 우리 송도 유원지라고 했었잖아요. 거기다 그렇게 물이 맑지는 않았잖아요.

구술자: 거기(송도)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송도는 요새는 그래도 나중에 빼잖아요. 이게 되지만 거기(새인천풀장)는 그냥 한 달 내내 받아 놓으면 그걸로 계속 하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 아무튼 엄청 시커맸었어요.

면담자: 그런데 피부병 같은 이런 건 없었어요.



구술자: 건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니면 이미 그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그 매연과 안 좋은 환경에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면담자: 그렇구나

구술자: 그거 먹어서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면담자: 새인천 유원지도 송도유원지처럼 주변에 놀이기구나 식당이나 이런 거 있었나요?

구술자: 그런거 없었어요.

면담자: 딱 그 풀장만 있었어.

구술자: 풀장이 있었고, 미끄럼틀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풀장은 깊이가 아주 작은 데도 있고, 많이 해냈었어요. 근데 미끄럼틀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타려면 꼭 깊은 데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면담자: 시간을 정해서 그러니까 요일을 정해서 개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주일 내내 개방을

구술자: 아마 시간은 있었겠죠. 근데 주로 다 낮에 놀았던 기억이 나고 바닷물이었기 때문에 등이나 살갓이 금방 탔었어요. 진짜 완전히 껍데기 다 벗겨질 정도로. 짠물이니깐. 거기에 노상 담가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결코 쾌적하지도 않았죠.

면담자: 그럼 엄마가 뭐 이렇게 뭐 발라주셨어요?

구술자: 네. 감자나 오이 같은 거 뭐 발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의학 용품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고생했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 지나고 나면 항상 빨개지고 나중에 시커매지고 그 기억이 있어요.

아팠던. 근데 그다음 해에 또 왔다는 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면담자: 우리가 우스갯소리 얘기하듯이 여름에는 껌등이가 되고 겨울에는 하얘지고 이걸



반복한 거네요.

구술자: 네네네.

면담자: 그러셨구나

## 5. 초등학교 등하교길의 악몽(00:17:05~00:20:34)

면담자: 그러면은 거기서 사시면서 초등학교는 어디로 다니셨어요?

구술자: 학익초등학교

면담자: 당시에 차가 없었으니까 걸어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서 주변에 뭐가 있었고 시간은 얼마 정도 걸렸어요?

구술자: 제가 집에서부터 출발하면 거의 제 30분은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남아 있는 호미마을은 평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거의 언덕빼기예요. 지금 경찰서 있잖아요. 경찰서 윗동네로 이렇게 언덕 둔덕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경찰서를 지나서 장미 아파트를 다 지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걸음으로는 거의 30분에 임박하는 그런 거리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뭐죠? 장미 아파트 뒷길로 무슨 천이 있었잖아요.

냄새 엄청 나고 맨날 거기 지나갈 때 코 막고 다녔던 기억나요. 너무 싫었어요.

면담자: 그러면 여름에는 모기도 많고 냄새도 심하고

구술자: 모기는 둘째치고 송충이가 어마무시하게 많았거든요.

그 학익천에서,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 담벼락 사이로 짝. 송충이가 좋아하는 이파리 넓은 나무였던 것 같은데, 농약을 안 쳤는지 그냥 걸어가도 송충이가 떨어질 정도였어요.

맨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력 질주해서 뛰어가야 돼요. 아~~이러면서

면담자: 그 송충이 구간이 꽤 길었어요?

구술자: 꽤 길었죠. 장미 아파트 그 담벼락이 다였으니까



면담자: 그때 당시에는 100미터 질주하듯이. 100미터보다 더 길었어요.

구술자: 여름마다 싫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다녀야 되나. 그래서 우산을 쓰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어.

면담자: 그랬었구나. 그럼 어쨌든 학익천에서 놀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구술자: 저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79년생인데 그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거기는 너무 더럽고 이미 다 썩어서 냄새가 올라올 때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없앤다고 했을 때 저는 좋아했어요. 솔직히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 차라리 냄새나는데 잘 됐다.

면담자: 냄새하고 송충이 생각만 나시는 거네요.

구술자: 네 좋았던 기억 같은 거는 사실

면담자: 개구리나 이렇게 더러워서

구술자: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였어요. 아마 이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전이었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70년 이후 80년대 이때는 아예 그냥 거기는 엉망이었어요.

면담자: 지금 W여성병원. 거기도 복구해가지고 지금 막은 거잖아요.

저도 승기천을 지나다녔는데 거기 난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냥 딱 다리만 있잖아요. 저는 그 길이 너무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갖고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가운데 길로 해서 막 뛰어갔던 것 같아요.

구술자: 그 밑에 학익천을 내려가 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달아도 너무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굳이 거기 내려간다는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어

면담자: 그래도 그 밑을 볼 용기가 있었네요. 저는 그것도 없어 갖고 무서워서 그냥

구술자: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물이 많지는 않았는데 항상 더러웠으니까. 이 냄새의 근원이

어딘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만큼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되게 심했어요.

## 6. 호미마을에 살던집 위치 확인(00:20:35~00:26:55)

면담자: 하나 더 여쭙볼게요. 호미마을 혹시 어디에 거주하셨는지 생각나시는지

지원자: 다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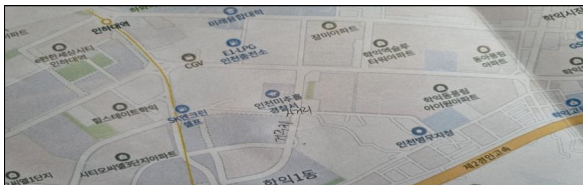
구술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찰서

면담자: 이쪽이에요. 언덕은 여기



면담자: 보면 이게 여기가 지금 미추홀 경찰서고, 이것을 지금 요대로 잠깐만요.

이걸 맞게 되면 이렇게 여기 여기 사거리가 지금 여기 사거리거든요. 네



구술자: 경찰서에서 지금 없어진 동네 윗동네로 이렇게 올라가면 아마 이쪽쯤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것만 남은 거잖아요. 여기 제가 가끔씩 가면 우리 동네는 아예 흔적이 없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면담자: 지금 그러면 아파트 들어선 그쪽 말씀하시는

구술자: 아파트 아니에요. 학익동에 정광 아파트라고 있던데 지인이 그 근방에 사셔서. 거기서 병무청 바라보면 그 위에 조금 몇 집들이 남아 있더라고요.

거기 밑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거기 동네를 많이 깎고 병무청이랑. 아마 그 근방부터 다 마을이었는데 그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지원자: 제가 잠깐 여기서 띄워드릴게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데는 여기고 병무지청은 이쪽에  
여기 아파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집들이 지금 몇 개 있거든요. 공장도 몇 개 있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모여 사는  
호미 마을이고 선생님이 여기 뒷동네에 사셨다는 건지 여기 위에 언저리에 사셨다는 건지.  
여기 살았으면은 학익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지나가셨을 것 같고, 이쪽에 살았으면 그냥 쪽  
지나가 그러면은 경찰서 뒤쪽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극동 방송 사옥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걸 보신 기억은 없으세요?

밭도 있고 막 이랬던 기와집이에요. 사옥이라서 건물이 아니라. 여기 사셨던 분들이 대부분  
정광 아파트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쪽 왼쪽에 사셨던 분들이. 근데 여기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낭떠러지고 이 라인이

구술자: 이렇게 위에까지는 우리는 안 갔고, 여기에 동네가 있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동양화학 바로 후문 쪽에서 살았거든요. 한동안

지원자: 네 맞아요. 여기가 후문 쪽이에요.

구술자: 동양화학 후문 쪽에 바로 붙어서. 그래서 몇 발자국 안 가도 동양화학을 들어갔었던  
기억이 나요.

지원자: 문이 열려 있었나요?

구술자: 거의 열려 있어요.

지원자: 그래서 들어가서 놀으셨다는 거구나. 기차는 못 보셨어요? 동양화학 내부를 지나가는  
기차

구술자: 있었죠. 그건 위에

지원자: 여기서 윗부분이랑 여기를 말하는 거죠. 힐스테이트 학익 이쪽.

구술자: 근데 우리 동네에서는 안 보였어.



지원자: 기차가 지나다니는 게 동네에서는 안 보이는데, 보신 적이 있는지

구술자: 산에서 올라가서 놀다가 본적도 있어요

지원자: 산을 올라다니셨나 보네요.

구술자: 여기 살았어도 이쪽 동네까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문학산 자락까지 가서 실컷 놀다가 집에 와서 코피 쏟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니까.

지원자: 아까 학교 가는 데 30분 걸린 이유를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냥 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구술자: 그냥 갔어요. 아니 송충이 때문에 마음의 고생을 하면서.

지원자: 네네 다음 질문 뭐 더

면담자: 저한테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거는 없으세요 제가 질문한 거 말고

구술자: 어떤 게 궁금하신지

면담자: 그냥 생각나는 거. 그냥 소소하게 지냈던 거 생각한 거 그런 거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막걸리 사 오라고 그러면은, 제가 원체 겁이 많아 가지고 그 골목을 막 뛰어갔다가 그 막걸리를 사갖고 뛰어오면서 넘어져가지고 반 이상 쏟은 적도 있어요.

혹시 거기 골목은 가로등이 많고 이랬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혹시 아버님이 뭐 심부름 같은 거 안 시키셨나

구술자: 가로등이 있었다 이런 기억은 잘 모르겠고 그냥 골목은 다 좁았던 것 같아요.  
동양화학 다니시는 분들은 술들을 많이 드셨어요. 어르신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이런 느낌이었던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이 좀 힘들었게 지내지는 않았을까. 저희 아빠는 술은 안 드셨고 동양화학을 안 다니셨거든요. 엄마는 술을 좋아하셨지만. 그분들은 맨날 일상에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술 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니까 곳곳에서 좀 언쟁 같은 거, 싸움 많이 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늘 얼큰하게, 이렇게 별걸게 상기돼서 다니셨다. 밤에는



그냥 항상 그런 분들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 있죠.

면담자: 그리고 동양화학 후문에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술자: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도 여러 번 이사를 다녔으니까 그때의 기억도 있고 또 아닐 때도 있고

## 7. 동양화학 석회석 산에서 놀던기억(00:26:56~00:30:46)

면담자: 동양화학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서 놀다가 나오고 이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양화학, 담벼락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느낌 그런 게 혹시 생각나요?

구술자: 동양화학 담벼락

면담자: 그 문을 보면서 오로지 내가 저기 동산 같은 데서 썰매를 탄다. 이 목적 그것만 생각하셨는지 아니면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구술자: 담벼락은 그냥 시멘트로 돼 있어서 좀 어둡고 칙칙하다 이런 느낌이었죠.

면담자: 아무 생각 없이 저건 담이다. 이 생각

구술자: 네네네.

면담자: 그 안에 들어가서 노실 때는 눈썰매처럼 썰매 타고 노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놀면서 서로 막 망봐주면서 이렇게 탔나요.

구술자: 아니요. 갈 때는 한꺼번에 우르르 갔어요. 그냥

면담자: 망보고 이런 거 없이

구술자: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키지 않아요.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봤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 알았고 그래서 열심히 놀았는데, 어찌다 한 번씩 경비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또 한동안은 좀 잠잠하다가 다시 가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면담자: 그럼 동양화학에서는 주로 썰매만 타신 거네요.

구술자: 안에까지는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광활했어요. 그것도 동산처럼 느껴질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 자재 쌓아놓은 게. 그래서 그 이상을 넘어간다는 거는 더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놀아도 충분했다는 느낌이 있었죠. 사실 기계음도 굉장히 심하고 소음이 가까이만 가도 심했어요.

또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마음 있잖아요. 누구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혼나는데, 괜히 거기서 마주치면 안 되니까 후문 쪽문 입구에서만 놀다가 후딱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굳이 거기 회사를 휘젓고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면담자: 동양화학 봤을 때 그 폐석회 말고 또 기억나는 게 또 있어요? 굴뚝이나 건물

구술자: 늘상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나왔죠. 어렸을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고 아빠가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거기에 적나라하게 그 동양화학 굴뚝에서 연기 나는 게 찍혔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건 일상다반사였죠. 눈 뜨고 일어나서 보면 열심히 연기가 24시간 뿜어져 나왔으니까

면담자: 냄새 같은 거는 좀 어땠어요?

구술자: 냄새도 좀 났죠.

면담자: 스며들듯이

구술자: 네네네. 근데 그게 ‘너무 역겨워’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익천은 거기 가까이만 가도 왁~ 그 정도인데. (동양화학은) 막 토할 정도다 막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제가 둔감해서 그런지 못 느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추적은 안 해봤지만 저희 엄마도 암 때문에 수술하시고 이랬는데 아마 몸이 조금 예민하셨거나 좀 그런 데로 발현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 8. 호미마을 이야기 2(00:30:47~00:44:19)



면담자: 그러면은 혹시 형제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구술자: 저는 남동생만 있어요.

면담자: 그러면 남동생이 주로 누나 따라서 많이

구술자: 그럴 수가 없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저 12살 때 태어났어요. 개가

면담자: 그렇구나

구술자: 그래서 거기서 잠깐 맛을 보고 100일만 지나고선 바로 나왔어요. 다른 동네로

구술자: 엄마도 좀 체력적으로 튼튼하지가 않으시고, 동생도 엄마 영향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많이 좀 아팠어요. 거기 살면서 애기가 병원에 자주 갔죠.

저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환경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애가 별로 이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너무 젊어서 시작했으니까 그때(구술자가 어릴 때) 가난했지만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동생 태어났을 때쯤이면 여력이 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여길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저희는 관교동으로 나왔어요.

면담자: 저희는 의결권이 없으니까

구술자: 그랬었어요. 그리고 거기 동양화학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열심히만 사셨으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많이 좀 윤택해지셨을 것 같아요

면담자: 저도 아는 분 아버지가 거기(동양화학)를 다니셔가지고 월급을 많이 잘 받으셔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구술자: 초등학교 때 분명히 거기 같이 살았는데 그 친구 아버님도 동양화학에서 열심히 하셔서 부천으로 이사 갔었던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부의 축적은 못지않게 누리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계셨던 많은 분들이 다 그 파란색 제복 입었던 기억이 나요. 많은 어른들이 다 거길 다녔어요. 진짜 많이 다들



면담자: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부모님들이 거의 맞벌이가 많으셨어요?

구술자: 거의 열집 중에 아홉집은, 거의 저희 엄마만 안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니까. 저희 아빠도 동양은 아니지만 어딘가 다녔는데 엄마만 거의 집에 낮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지원자: 그리고 또 제가 좀 질문해도 될까요? 성희씨 혹시 거주했던 집 중에 집의 구조가 기억나는 집이 혹시 있으세요? 그러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골목이 없어진 거잖아 그렇죠. 집은 없어진 거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가는 여기 경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술자: 여기 경찰서라고 하면 여기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원자: 여기가 약간 언덕이에요. 지금은 도로가 됐어요.

구술자: 가다가 이만큼 정도 공터가 나오고, 여기 좀 큰 집이 있었어요. 이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이 동네 유지였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원자: 느낌에

구술자: 그리고 여기에 딸 하나 아들 둘이었는데 그 딸이 저랑 친구였거든요. 아빠가 트럭 기사 같은 거 그런 거 하셨던 분이고, 여기 집이 하나 있었고 요 옆으로 판자촌 같은 그런 집들이 딱딱따닥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근방에, 그때 같이 가서 봤던 성남이 엄마 그분도 여기 살고 계셨었고 저희도 그중에 한 군데서 살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고. 여기서부터 짹 이어져요.

여기서 사다리 타고 내려가면 저희가 살았던 큰집<sup>1)</sup>이 있거든요.

그 큰집이 이렇게 뒷골목으로 이어져 가지고

지원자: 다 연결이 돼 있었구나.

구술자: 그래서 여기 집으로 들어가면은

지원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

1) 크기가 큰 집이 아니라, 큰아버지가 살았던 집. 이하 구술에 나오는 '큰집'은 모두 동일한 의미.



구술자: 여기에 바로 문간방이 하나 있었고

지원자: 문간방 오랜만에 들었구나.

구술자: 바로 문에 문간방이 하나 있었고 이 옆에도 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이 방에서도 살았었거든요. 제가 이 방에 있었고, 여기 큰 집에 방문 들어가서 이 안에 방이 안쪽으로도 하나 있고, 이게 이쪽 뒷문 사다리랑 연결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방을 또 하나 줘서 여기 또 세 들어 살았던 집이 두 집이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살려고 또 집을 지었고. 제가 듣기로 큰엄마 큰아빠가 상경해서 집을 본인이 직접 지었다고 들었어요.

지원자: 그때 당시에 많이 그랬대요. 내 집이 있으면 새로운 친척을 불러서 방을 붙여서 하나를 또 짓는 거예요.

구술자: 심지어 아마 자기 땅도 아닐 거예요. 무허가 무허가야. 근데 나중에 여기서 오래도록 살았다는 것 때문에 보상까지 받고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큰엄마 큰아빠는 장미 아파트로 이사 가셨거든 이 보상 받고. 여기서 큰엄마 큰아빠가 이 단칸방 하나만 아빠에게 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

지원자: 그럼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먼저 오셨던 거구나. 그분들은 어디 다니셨던 거예요

구술자: 동양화학. 둘 다. 지금 그분들이 80이니까

지원자: 지금은 지방에 사시나 보죠?

구술자: 지금은 전라도. 원래 고향이 전라도여서 거기 가서도 본인들이 집을 지으셨어요.

지원자: 기본적으로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네요. 내 집은 내가 짓는다.

구술자: 이런 구조였고. 화장실

지원자: 화장실이 궁금해요.

구술자: 푸세식이었어요.



지원자: 이 집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같이 쓰는 화장실이었던

구술자: 제가 마지막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거기를 썼는데 큰엄마 큰아빠가 본인들도 딸이 셋이나 있었으니까 집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었어요.

그래서 안주인 행세를 한 거죠. 본인들은 그걸 쓰시고 저는 공동 화장실을 썼던 기억이 나요. 책 중에 똥떡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에 빠지거든요. 그 주인공이 똥 똥 떡 떡이에요. 애가 빠졌기 때문에 귀신이 잡아갈 수 있어서 떡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떡을 바치는 거야. 화장실 안에 붙어 있는 그 귀신한테. 그래서 이름이 똥떡이에요. 왼쪽 다리가 빠졌는데 우리 할머니는 떡은 안 해줬던 기억이 나요.

시골 저희 시어머니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이 왜 그렇게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저희 큰애 때까지는 푸세식을 이용하게 했거든요. 시골 어머니 덕에. 제가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옛날에 거기서 살다가 내 다리가 빠졌었지’ 그래서 엄청 울고 이거 내 다리 어떻게 할 거냐고 할머니한테.

미끄러져서 빠진 거야. 허벅지까지 깊이 빠졌던 기억이 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를 닦아주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똑같이 닦냐. 니 아빠도 옛날에 빠졌었는데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원자: 아까 집에 사다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윗집에 길이랑 연결된 사다리.

구술자: 네 맞아요.

지원자: 저희가 가서 보면 약간 집이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막

구술자: 여기 큰집에서 여기 위에까지 방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이 남고, 그러니까 방을 여기를 하나 뚫다가 점점, 저도 태어났고 이랬으니까 큰집에서 또 여기를 써라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몇 번이나 집을 옮겼던 기억이 남아요.

지원자: 기억나는 이웃은 있으세요? 아까 그 성남이 엄마 말고 기억나는 이웃. 그래도 엄마가 혼자서 계속 혼자만 계시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낮에 아이들 돌보는 건 엄마 혼자 하셨는데. 결국은 다 동네 친구들이 되신 거죠.



이분들이랑도 잘 어울려서 술 마시고 노셨고, 여기 유지였다는 이 집, 여기는 큰애 이름이 은미인데 은미 엄마랑도 같이 잘 지내고 놀았고. 저희 엄마는 연락이 끊긴 것 같은데 큰엄마 쪽은 여기 계셨던 분들이랑 아직도 친목회를 하셔서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래도록 사셨으니까

지원자: 원년 멤버들이시네. 그렇구나.

구술자: 그리고 세탁소. 세탁소 이름은 뭔지 기억이 안 나고, 우리 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 세탁소에 그렇게 자주 갔을까.

세탁소 분이 2대8 가르마에서 완전 옛날식 포마드 기름 짭 해가지고 그런 멧쟁이 아저씨였어요. 은이빨 하나 보였고. 저희 할머니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항상 술판을 벌려서 저를 술자리에 데려갔던 기억이 나요. 왜 저 사람들은 맨날 술을 마실까.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그분도 문 씨였다는 거예요. 저희 친할머니 성이 문 씨였는데, 그래서 약간 양아들 같은 개념으로 지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자: 지금은 바뀌셨겠죠 그 세탁소 주인

구술자: 모르죠. 가본 적도 없어요. 세탁소를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와이셔츠 반팔 여름에도 아주 잘 다려 입고, 깔끔하게 항상 계시고 있다가 술만 먹으면 다 흐트러져가지고 저럴 거면 왜 저렇게 깨끗하게 하셨을까

지원자: 주로 어르신들이 술을 마셨다고 계속 그게 기억에 남으시는데

구술자: 매일같이 그러니까. 거기는 세탁소 가서 먹은 거예요.

지원자: 세탁소 앞에 매점도 하나 있었고

구술자: 아니 세탁소 집에 가서

지원자: 지금 현재 있는 그 세탁소

구술자: 거긴지 모르겠어요.



지원자: 기억은 안 나시고

구술자: 주로 다 각각의 집에서 많이 마셨죠.

지원자: 어떻게 술을 마시는지는 아셨는지? 늘 남의 집을 가지는 않잖아요.

구술자: 아니에요. 옛날에는 맨날 남의 집 다 갔어요.

지원자: 오픈 돼 있는 대문 열고서 이렇게

구술자: 이렇게 사다리 타고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누구 엄마 있어?’ 1988 그런 느낌처럼.  
무슨 건수가 없어서 못 모이지.

지원자: 동네에 이렇게 매점이나 이런 뭐 파는 데

구술자: 슈퍼 있었어요. 구멍가게 있었어요. 되게 오래됐던. 기억에 남고 문도 나무 색깔  
미달이. 이렇게 열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주인분이 그렇게 딱히 기억에 남지는 않고 거기서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든 되게 오래됐었어.

지원자: 강아지가 나이가

구술자: ‘애는 몇 살이에요?’ 그러면 십몇 년이 됐다고 했었어. 그래서 나는 맨날 들으면 재는  
불사신인가. 근데 한동안 계속 물어보면 똑같았거든. 그래서 나이를 모르시는 건가 여기서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면담자: 그러면 거기 구멍가게 같은데 가면 주로 뭘 사서 먹었어요?

구술자: 사탕도 먹고 뭐 사실 그렇게 기억에 남지는 않아요.

남들이 먹었던 걸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맛있었다 이런 기억은 없던 것 같아요.

오래된 거라고 느끼는 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때도 가게에 있는 물건들이 깨끗하다  
이런 느낌은 없었고 불빛도 이렇게 환하지가 않고 항상 가게도 어두침침하고 좀 그랬어요.  
그래서 자주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



## 9. 엄마와 동인천 나들이(00:44:20~00:46:19)

지원자: 그럼 어디서 음식 같은 걸 사갖고 오셔서 어머니가 (음식을 장만)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게 가게에 구멍가게.

구술자: 아니 아니야. 저희 엄마는 고향이 동인천 쪽 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울목동이거든요. 본적이. 저를 끌고, 동생이 또 태어났기도 했고 하니까 거의 1시간 걸려서  
3번 버스를 타고 동인천까지 나갔었어요.

지원자: 장을 보러

구술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않으니까, 가정주부니까 일부러 거기 나가는 거예요.  
자기도 20대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 추억이 거기 다 있잖아요.  
거기 한 번씩 가서 좀 힐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원자: 가서 많이 얻어먹으셨겠네.

구술자: 네 그래서 동인천에 오히려 많이 다녔어요. 뭐 물건 사고 이런 거는 사실 잘 없어요.

지원자: 3번 버스타고

구술자: 3번 버스 타고 거의 1시간을 갔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였는데, 엄마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3번 버스 타고 혼자 집에 왔어요.

면담자: 그래도 잘 기억하고

구술자: 계속 다녔던 길이니까. 이때쯤 내리면 된다는 게 있었던 거야.  
거기 내려서 걸어서 저희 집까지. 그때도 거의 한 30분은 가야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 경인방송 쪽에서 내려서 이렇게 짹 올라가야 되니까, 한참 걸어갔었던거예요.  
버스가 거기밖에 없었으니까요. 그 동네에서는 바로 인접해서 있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면담자: 그럼 그때 버스를 태워주셨어요? 공짜로



구술자: 태워주던데요

면담자: 그래요. 그래도 인심이 후하셨네.

구술자: 3번 버스를 자주 이용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타는 데서 타고 내리는 데서 내리잖아요. 이용할 사람이 없거든요. 거의 허허벌판이고. 3번 버스 타고 또 중간에서 내렸던 게 아니라 동인천까지. 그러니까 저 모녀는 한 번씩 저렇게 가는구나 라고 아마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알았던 것 같아요.

## 10. 옛 집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억(00:46:20~00:58:45)

지원자: 그때 버스 정류장에서 주변 풍경이 다 눈발이었겠네.

구술자: 눈발도 아니고 그냥 허허 벌판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 밀어넣은 듯한

지원자: 지금 동양제철처럼

구술자: 그런 느낌이었어. 아무것도 없고 막 흙먼지 날리고. 버스가 와도 그랬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막 이렇게 흙이 많이 묻고 막 이랬었어요.

지원자: 그래서 학익천을 건너가서 이렇게 가셨겠네요. 승기천은 다리 난간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학익천은 난간 같은 게 기억이 안 나세요?

구술자: 난간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원자: 나중에 생겼나 보다. 그 학익천에 대한 기억이 어떤 분은 시체도 많이 봤다고

구술자: 그건 그전이었던 거고

지원자: 그 전이에요. 지금 50대 후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구술자: 많이 빠졌나 보다.



지원자: 저 위에 산속에서 죽고 이렇게

구술자: 인성여고 나오신 저희 엄마도, 홍예문 있잖아요. 홍예문에서 엄마 고등학교 때는 목 매달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등교할 때마다 봤다고 그랬었어요.

지원자: 그래 그러고도 남을 때다

구술자: 시체가 헛바닥이. 사람 헛바닥이 되게 길대요.

이렇게 쭉 늘어져서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얼마나 트라우마였겠어요. 거기 그때 당시에 지냈던 분들은

지원자: 다행히 선생님 안 보였네. 학익천에서

구술자: 어 그런 거는 하나도. 냄새만 났던 기억이 나요.

지원자: 물이 너무 없긴 했었나 보네요.

구술자: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시커먼 오염 덩어리 그런 것만 짝 깔려 있었어요.

지원자: 선생님 집에서 내려 경찰서로 내려오는 그 길 오른쪽이 다 공장 지대였거든요. 기억나세요?

구술자: 공장지대였고. 그쪽뿐만 아직 남아 있나 모르겠네. 집창촌? 거기 많이 지나다녔죠

지원자: 거기를 지나다녔다고 엄마랑

구술자: 낮에 목욕탕을 가려면 글로 가야 가까워

지원자: 그 길 건너 보성봉탕 아직도 있거든요. 보성 사우나

구술자: 그 근방에 철강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란 지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 이어져 이런 데도 많이 있었고 거기가



지원자: 거기가 철강이 아니라 섬유 회사 동일레나운

구술자: 그게 동일레나운 되나요? 그쪽이

지원자: 그쪽 라인이 동일레나운

구술자: 아니야 근데 내가 문 열고서 일하는 걸 봤거든. 철강이었어

지원자: 그러면 또 제가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술자: 그리고 여기는 엄마 말이, 장미 아파트 건너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데가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삼강 유리?

지원자: 바로 옆에

구술자: 어 건너편

지원자: 건너편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

구술자: 담벼락 그러니까

지원자: 지금 아직도 있는 인하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한국 농약

구술자: 그 회사도 되게 오래돼서 내가 맨날 볼 때마다 여기는 아직도 저 모양 그대로 있네.

지원자: 그대로 있어요. 네.

구술자: 그 어귀를 맨날 학교 지나갈 때

지원자: 송충이 밭이 되고 한 데가 거기잖아요.

구술자: 그 라인을 그렇게 지나갔으니까, 그 회사는 아직도 기억에 남죠. 어렸을 때부터 봤었어.



지원자: 네 맞습니다. 거기는 한국 농약, 지금은 로지스틱스라 그래가지고 물류 회사가 쓰고 있고요. 옛날에는 일제시대 때도 농약 회사였고, 한국 농약으로 바뀐 데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지원자: 그 다음에 동양화학. 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학익천 냄새 vs 동양화학 냄새 이랬더니 동양화학보다는 (학익천이 훨씬 심했다고 하셨는데요.) 동양화학 버스를 타고 새인천이나 청학동 나가려고 버스를 타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창문을 못 열었다고 하시던데

구술자: 그쪽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쪽은 그렇게까지는

지원자: 그래도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구술자: 토양 같은 건 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직접적인 거니까. 연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었으니까 저쪽으로 갔을 확률이 더 높고

지원자: 지금 도로 있잖아요. 저기 송도 넘어가는 그 도로에서 창문을 못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았어. 기억만 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나중에 동양의 근로자는 대부분 집에서 술을 마셨다. 새인천 유원지까지는 걸어가셨어요?

구술자: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갔는지

지원자: 어떤 기록에는 동양화학을 내부로 문을 열어줬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동양화학을 지나서 갔다고 하더라고요. 공장 내부를

구술자: 그렇게까지는 안 갔던 것 같고 아빠 차가 있어서 아마 아빠 차로 갔었어.

지원자: 아빠 차는 어디에다 대셨을까요?

구술자: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봉고차 뒤에 다 때려넣고



지원자: 그 뒤에 타면서 덜컹덜컹 타고

구술자: 그렇게 갔겠지

지원자: 이 집에 수도 있었어요?

구술자: 모든 집이 다 기억나진 않는데, 이사를 많이 다녀서요.

지원자: 아 네네네.

구술자: 마지막으로 제 동생 있었을 때는, 구조가 방 하나 딱 있고 부엌 겸 약간 간단하게 쉬  
쌀 수 있는, 완전 화장실이 아니라 진짜 그런 식 구조였거든요.

거기에 수도가 있었던 기억은 나요 딱 하나 수도꼭지 하나 그래서

지원자: 많이 들어오긴 했었다는 얘기네. 마을에

구술자: 이렇게 시멘트 바닥이었으니까 엄마가 물을 항상 이렇게 찌그렸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했었던 기억

지원자: 그럼 그 전에 수도 없을 때 물을 어떻게 갖다가 쓰셨는지는 기억이 나나요? 그러면  
딸은 안 시킨 거죠. 어머니가

구술자: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시켰지요.

지원자: 네 어머니가 어디선가 다 길어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면담자: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감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저희 아버지도 저희 엄마랑 같이 맛벌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목수였어요.

근데 목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 종종 이렇게 비 오는 날, 저희 집에 엄마가 안 계시니까 오셔가지고 고스톱 치고  
술 한잔 드시고 그러고 놀다 가셨던 기억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와서 자주 놀다 가셨었어요.

일단 엄마가 안 계셔서 눈치 볼 사람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구술자: 제가 79년생이니깐 80년대일 거예요.

80년대 초반 이렇게 지내고 90년대. 제 동생이 90년생이니깐 딱 80년대부터 90년 그 사이 10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억이 90년대 이후로는 다 저는 관교동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이후는 몰라요.

지원자: 마을에서 어른들한테 들었던 마을의 문제라든가, 이 동네는 뭐 이래 이런 그런 거는 그런 대화를 나눌 정도

구술자: 그냥 엄마한테 어렴풋이 얘기 나왔던 거는, 그때 제가 태어나고 나서 79년도니까, 정권이 불안정하고 박정희 저격당하고 막 이랬던 말이에요.

삼청교육대도 나중에 나오고, 여기도 부랑자들도 있고 소위 말하는 질 안 좋은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어른들이랑 얘기하다가 거기 누구 땡땡이 삼청교육대 끌려 갔다가 왔다잖아 이런 얘기.

지원자: 그런 얘기 풍월로 들은

구술자: 엄마한테 나중에 '옛날에 그런 얘기했었지' 그랬더니 '어 너 기억나냐' 이러면서 '그래 소문에 그 사람이 한동안 없어졌더라. 그래가지고 나타났는데 바보가 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도 있었지만 반면에 또 그렇게 정신 산란한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지원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술자: 여기는 인천 토박이들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 빼고는 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먹고 살아보겠다고 무허가 땅에다가 집을 막 짓고 사셨던 거라서 억척 같더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마음이 여유롭거나 이러신 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억척스럽게 아등바등 산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큰엄마 큰아빠도 그렇게 유순하신 분들이 아니었거든요. 되게 억척스럽게 사셨죠

지원자: 그러니까 다들 좋은 데 이사 가시고 하시지 안 그러면

구술자: 세월이 그렇게 만든 거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저희 엄마가 저를 낳고 나서 얘기



젓도 먹여야 되고 이러는데 모유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유를 타려면 뜨거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뜨거운 물을 넣어 놓고 이렇게 누르면 그 뜨거운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조차 살 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는 키워야 되고 하니까, 큰 집에 아마 그게 있었나 봐요. 큰 집은 엄마 아빠랑 나이가 10살 차이 나시고, 또 두 분이 맞벌이하셨으니까 그거 좀 빌려달라고 엄마가 얘기를 하셨대요. 당시에는 알겠다고 해서 빌려줘 놓고서는 하루 만에 우리도 써야된다고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지원자: 서운하셨겠다.

구술자: 그거를 엄마 아빠가 기억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 둘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자: 엄마 아빠만 서운한 일이죠.

구술자: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다 모여 있던 곳이죠.

지원자: 거기 상해군인 용사의 집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구술자: 그런 거 없어요. 없었어요.

지원자: 옛날 지도를 보면은 미추홀 경찰서 건너편 쪽에 지금 성당 옆에, 그쪽 미도반점 있는 라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상해군인 용사들이 사는 마을이 또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구술자: 그리고 큰아빠가 이 동네에서 오래도록 통장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아빠를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고, 어떤 식으로 동네가 이루어졌는지는 그런 분들 위주로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더

지원자: 불법을 많이 해서 얘기 안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구술자: 어차피 여기 인천에 오지도 않아

지원자: 안 사시니까



구술자: 그러니까 제가 소스를 드리자면, 알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 소리예요.

지원자: 네 맞죠. 좋죠. 근데

구술자: 저는 (마을이) 형성된 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 80년대나 살았으니까 그 정도 기억밖에 없어서

지원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담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더 모르는 것 같고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면담자: 네 그러면 지금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11. 돌산과 구치소에 대한 기억(00:00~02:06)

면담자: 옛날에는 여기 돌산 있었잖아요. 그냥 이제 돌산도 그때 우진 아파트를 기점으로 산이 약간 깎여서 여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었어요.

그럼 거기를 넘어가면은 집들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저기 가기에는 너무 멀다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올 수 있을까

구술자: 돌산에 들어가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면담자: 돌산에서 뛰대기고 놀았는데 뭘 하고 놀았는지 모르겠어.

구술자: 고모네 애들이랑 같이 그 동네 애들이랑 ‘우리 저기 갈까’ 해서 데 갔더니 신동아 아파트 자리였던 거야

지원자: 그건 돌산이었어요.



구술자: 어마무시하게 깊고 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돌도 있구나 세상에

지원자: 구치소에서 신동아로 올라갔었구나. 지금 구치소가 소년형무소였어요. 구치소에서 소년형무소

구술자: 그래서 파란색 옷 입고 겨울에 회색 추리닝 이런 것도 입고 나오면서 작업하기도 하고 체육시키기도 하고

지원자: 여자들도 있었어요.

구술자: 난 남자밖에 못 봤어. 다 머리 똑같이 밀고 완전히

지원자: 소년 소녀라고 써 있는 데도 있고 소년만 써 있는 데도 있고 이래

구술자: 철창에 어쨌든 보이게끔 해놨거든. 바깥에서 얼굴 형체가 보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루엣이 다 보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될 정도였으니까.  
나는 어린 마음에, 지금 따지면 청소년이니까 왜 저기 저렇게 멀쩡한 오빠들이 죄다 서있지. 몰랐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랬던 곳이었어.  
그 안이 되게 넓었고, 체력 훈련을 많이 시키려고 그랬는지 운동하는 기구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놔있고 그랬었어요.

지원자: 훌륭한 교정 기관으로 인정받은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구술자: 바깥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어. 내가 지나갈 때마다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고모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편이어서 엄마가 자주 데리고 갔었는데 갈 때마다 맨날 있었거든.

## 12. 가족, 화장실, 할머니에 대한 기억(02:07~13:11)

지원자: 고모는 정확히 어디 사셨던 거예요?

구술자: 우리 같이 갔었던 준법지원관 그 뒷동네였던 것 같아. 거기 지나서



지원자: 거기도 거주지가 몇 개 있었어요. 그쪽 뒤에도

구술자: 거기도 다 비슷하게 서민층.

지원자: 지금 거기 뒷골목 가보면 다 단독주택이잖아요. 좀 잘 사셨나 보다

구술자: 아니야 못 살았어. 거기도 애가, 딸이 셋이었어.

지원자: 거기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이 몇 채 있거든요. 그 뒷골목에 준법지원(센터).

구술자: 무허가는 아니었거든. 내 기억에 시댁이 잘 살아서 많이 좀 보태줬었어.

지원자: 고모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누나 아니면 아버지 여동생

구술자: 여동생. 근데 나이가 두 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 엄마랑은 1살 차이이고  
이러니까 엄청 가깝게 (지냈죠). 그리고 또 또래 여자애를 낳고 이랬으니까 되게 가깝게 잘  
지냈죠. 나는 혼자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엄마가 이제 그 집에 셋이나 되니까 같이 놀아라  
하고 데리고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요.

지원자: 근데 왜 어머니는 일을 안 하셨을까? 건강이 안 좋아서 안 하셨을까 아버님이  
넉넉하게 벌어다 주셨을까

면담자: 그때 당시에 차가 있었으면 아버지가

구술자: 아빠사 건설을 하셔서

면담자: 그러니까 잘 버셔서

구술자: 아빠가 일이 그거였어. 철거를 하니까 지방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혼자 어디다 떼어놓고 엄마도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리고 그때는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원자: 아니 잘 모르셨을 것 같아.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일을 안 해도 남의 집 애들



구술자: 맨 처음에 시작할 때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때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지원자: 아버님 기술자셨네요.

구술자: 그때 자격증 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를 낳고서는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군대도 나를 낳고 나서 갔으니까 그때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아까 얘기할 걸 그랬나. 화장실에 친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면 토끼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산토끼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서 토끼 가죽 말린다고 변소에다가 걸어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변소를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게 무서웠던 거야. 털 달린 게 막 그대로 이렇게  
있으니까.

지원자: 그럼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사셨어

구술자: 다 사셨어. 큰어머니 큰아버지가

지원자: 그럼 큰아버지가 먼저 사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 거야

구술자: 다 같이 올라왔대요.

지원자: 다 같이

구술자: 큰아빠 큰아빠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원자: 고생 많이 하셨어.

구술자: 아무리 뭐 시골에서 뭘 좀 팔아서 갖고 왔어도, 무허가에서 살 정도면은 뭐 알  
만하잖아요. 그냥 집기류 정도 살 정도 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시고, 또 혹까지 달려서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엄마를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했으니 별로 예뻐 보이지 않았겠지.

지원자: 진짜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거기서 남편 없이 살기가.



구술자: 나를 낳고 아빠는 군대를 가버리고, 엄마는 애를 건사해야 되니까 동인천에 먹고 자는 식당에서 한 1년 가까이 지냈다고 하시던데. 나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맡긴 거야. 우리 완전히 그냥

지원자: 생이별을 하셨네요.

구술자: 내 기억에 할머니가 완전히 한량이셨거든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저를 이만한 풀밭에다가 돛자리 깔아놓고 요구르트 한 10줄을 해놓고, 저를 여기 끈에다가 이렇게 큰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한 3살. ‘성희야 이거 먹고 놀고 있어’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왔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할머니가 술을 먹고 온 것 같아요.

지원자: 나는 지금 말로만 듣던 얘기야

면담자: 나는 할머니는 술 드시고 여기 이제 못 넘어가게 묶어 넣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무에다

구술자: 나무에다 묶어서 그냥 요구르트 먹고 있으라

지원자: 기억이 왜곡된 건 아니죠

구술자: 아니죠. 내가 왜 굳이 그런 기억을.

지원자: 충격이다. 내 나이 또래가 그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구술자: 토끼 가죽 봤다고 했잖아.

구술자: 학익초등학교도 한 1 2학년 때까지는 푸세식 썼었어요.

면담자: 저도 문학초등 다녔는데

구술자: 초등학교 되게 무서웠어요. 집 (화장실)은 익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되게



깊고 항상 잘 채워났나 봐.

지원자: 깊었구나

구술자: 깊어. 그리고 음침해. 항상 시커맸어. 그래서 다니기가 너무 무서웠었어. 큰 걸 안 본다고 그래도 소변은 자주 갈 수 있잖아요. 항상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

지원자: 학익초등학교 때 몇 명이나 있었어요. 한 반에

구술자: 나 오전 오후 반 있었어.

면담자: 저 문학초도 오전 오후 반 있었어.

구술자: 2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까지 오전 오후 반이 었던 것 같아.

그리고 책상도 3학년 돼서야 좀 좋아지고. 약간 우드톤 돼 있는 그 옛날에는 초록 색깔 책상이었어. 1, 2학년 때까지 초록 색깔 책상. 나무가 둥굴게 돼 있는, 철재랑 같이 이어진 게 3학년 때 나왔고, 처음에는 딱 네모 반듯한 의자 썼었어요. 다닐 때 애들 되게 많았어. 아니 아무튼 오전 오후반이 나뉘질 정도였어. 3학년 때부터 오전 오후 반이 없었으니까

지원자: 애들 다 어디 갔냐고요.

면담자: 그리고 한 반에

지원자: 1, 2학년 때 오전 오후 반이었는데 왜 3학년 때 없어졌지? 반이 늘어난 건가

구술자: 아니야 반은 안 늘어났는데, 나처럼 이사 나가는 거야.

나도 5학년 때 돼서 나갔는데, 당시 관교동이 인천의 목동 같은 느낌이었거든. 그렇게 신도시 쪽으로 약간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원자: 관교동은 어디서 사셨어요?

구술자: 관교동



지원자: 먹자골목 있는데

구술자: 그쪽 동아뒤편으로 주택가들 짝 있거든요.

지원자: 거기도 옛날에는 주택이었나 보다. 전 주택을 못 보고 빌라만 봐서.

구술자: 되게 잘 사는 주택들 지금도 있어요. 세 들어서 살았었거든. 엄청 어마무시하게 큰 집

지원자: 그 집 너무 좋았겠다. 그럼 화장실도

구술자: 엄청 좋았지. 그래서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때 알았지.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학익동 옛날 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게 된 거죠. 거기 굳이 갈 일도 없었고

지원자: 그럼 학익 시장도 잘 안 가셨겠네요. 배다리로 가셨다고

구술자: 거기에 더 많이 갔지. 학익 시장을 많이 가진 않았지.

지원자: 학익 시장도 가긴 하셨구나.

구술자: 제가 여기 호미마을 쪽에서만 계속 산 게 아니라 학익 2동 쪽도 살았었거든요. 거기 학산문화센터

지원자: 학산문화원

구술자: 아니 거기 학산도서관인가

지원자: 학나래도서관

구술자: 옛날에 거기 건너편에 부영약국 있는 그 동네에서도 살았었어.

지원자: 인하부속고등학교. 거기가 옛날에 줄사택이 되게 많았던. 부영 사택이랑

구술자: 거기서 살았었거든요. 거기에 골목 지나가다 보면은 돌맹이 큰 길로 이어진



담벼락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던 집 담벼락이 아직도 있더라고. 그 집을 가보진 않았어요.  
거기서는 주택에 이렇게 세 들어서 살았었는데.

지원자: 이사 많이 하셨나 보다. 여기

구술자: 엄청 많이 했죠. 살다가 다시 학익동으로 들어갔거든. 왜 그랬는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 왜 그렇게까지 됐는지

지원자: 어머니 아버지 사정이시니까

면담자: 어렸을 때 사진은 많이 찍으셨었어요?

구술자: 찍었던 것 같은데, 시집 올 때 갖고 오려고 마음을 안 먹어서 몰라.

지원자: 난 다 갖고 왔는데. 선생님 사진도 좀 구해 주실 수 있는지

구술자: 집에 가봐야 알아. 친정집에

지원자: 가보셔야 될 거예요.

면담자: 아까 이야기한, 아버지가 사진 찍으라고 찍었는데 그 굴뚝에서 연기 나온 그런  
사진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구술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가봐야

지원자: 사진 제출해 주시면 저희 감사하죠. 이제 녹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녹음을 또 했어요. 이 짧은 시간에